

광주시 “1천억 아꼐다” 발표 맥쿼리와 싸고 시민 속였나

‘의혹 투성이’ 민선 6기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

광주시, 갑자기 소송 중단 협상 나서 합의금 369억 원 건네
 맥쿼리, 전 시장 측근과 사전 정지작업 ... 2016년 협상 타결

<1> 짜인 각본, 꼼수에 당했다

광주일보에 민선 6기인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와 맥쿼리가 체결한 제2순환도로 제1구간의 변경실시협약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경찰 수사에서 변경실시협약과 관련된 일부 비리가 드러난 바 있지만, 그로 인해 협약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광주일보는 변경실시협약 협상의 추진 배경, 논의 과정,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협약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추진돼 2016년 말 광주시와 맥쿼리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자 간 맺은 협약은 맥쿼리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5기 맥쿼리를 상대로 한 소송 1심, 2심에서 광주시가 각각 승소, 일부 승소하자 민선 6기 단체장이 바뀐 뒤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맞춰 사전에 소송을 중단하고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여지와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재정 절감 규모를 1000억 원 수준에서 타결하기 위해 불가상승률, 운영비 등의 변수를 조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경일변도였던 민선 5기와는 달리 민선 6기는 소송-협상 병행으로 전략을 바꿔 2015년 9월 재정경감대책단을 구성, 2016년 6월 14일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민선 6기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맥쿼리가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 시장 캠프 관계자와 유착, 역할을 분담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4년 12월 맥쿼리가 재구조화(회사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를 운영현 시장 캠프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 활동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을 위탁받아 2016년 4월부터 2년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의 소송은 이와는 별도의 건이었다. 협약 변경 과정에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광주순환도로투자자 정수와 시설관리 용역을 통합관리운영하도록 한 뒤 이 통합 운영을 김씨가 속해 있는 단체가 설립한 A업체에 맡기기로 했는데, 맥쿼리가 이를 어기면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김씨는 “2016년 9월 6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맥쿼리 임원, (주)광주순환도로투자자 대표, 광주시 담당 과장, 황씨 등과 통합관리운영업체를 선정하는 회의를 갖고, 운영비 증액 문제로 논란이 일자 A업체를 통합 위탁관리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며 “2017년 3월 17일 최종적인 합의 이후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맥쿼리 관계자는 “김씨와 김씨가 속한 단체의 압박으로 인해 용역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김씨는 (당시 임원이) 시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아 시정 내부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6년 12월 광주시가 (주)광주순환도로투자자와 맺은 변경실시협약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는 재정부담이 큰 MRG(최소수입보장방식)를 폐지하는 대신 ‘대안적 MCC’(투자비보전방식)를 선택했지만, 이는 투자자를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한 사례였다. 시 관계자는 “투자자를 변경하는 MCC를 맥쿼리가 거부해 대안적 MCC를 맺었다”며 “MCC로 하면 투자자에 대한 보장수익률을 3~5%로 할 수 있었지만, 투자자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9.8%를 보장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협약 변경에 따른 절감액이 1014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 금액은 불가상승률, 운영비 등에 따라 유동적인데다 369억원을 합의금 형태로 전담해 절감액 규모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2년간 행·재정을 총동원한 시가 자본구조를 원상대로 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취하한 대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민선 6기 광주시가 맥쿼리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자와 맺은 변경협약이 맥쿼리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변경협약 대상인 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나들목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북·미 2차 정상회담 내년 1~2월 열릴 듯

트럼프 “장소 3곳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세 군데가 어디 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일정 시점에(at some point)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것”이라고도 말

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미국이 아닐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동안 1월초에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선(先)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사이에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할 고위급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일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막판 협상
 오늘 현대차와 최종 조율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광주시 협상단이 지난달 27일 지역노동계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으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19년 예산 국회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지만, 2019년 예산안에는 반영되기 위해 되도록 이번 주 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협상단은 3일부터 현대차와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6월 1일 현대자동차가 투자의 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투자 협상은 지역노동계의 노사민정협의회 이탈과 함께 좌초 위기를 겪었다가 재참여, 합의문 작성, 포괄적 위임 등의 과정을 거쳐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이윤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전격 방문해 현대차 노동조합원들과 울산시민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조의 강한 반대에 망설이고 있는 현대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광주시가 현대차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했다는 것이다.

2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황헌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남인 일자리경제실장, 이삼배 전략산업국장 등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을 찾아 하부영 전국급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및 노조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현대차 노조의 대응적인 결단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노와 사가 함께 잘 사는 노사상생형 모델이고,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통합형 모델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가, 피부 피로
 잘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C 콤플렉스™의 항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이리파도, 미트, 아모레퍼미픽 매장, 아모레퍼미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amorepacific.com · 전화번호: 080-023-5454